

하이트진로, 광주사랑 기금 3000만원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6차 조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하이트진로 제공>

풍암동 주민자치위 후원금 전달



광주시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민태홍)는 최근 풍암동 한식당에서 복지기금 조성 자생단체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풍암동 주민자치위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사랑나눔 바자회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조웅범) 완화의료병동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는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광주 북구청 박상수씨 검도선수권 준우승



광주 북구청 검도단 박상수(오른쪽 두 번째) 선수가 최근 서울 흥익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36회 전국 일반검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북구청 제공>

“인생 2막, 새로운 즐거움에 적극할 시간 없죠”

‘빛고을예술단’ 공연 기획 송희평 서구 레크리에이션연합회장

서구복지관 어르신들 율동·악기 배우며 활력 충전 빛고을 건강타운 등 연계 품물·색소폰·난타공연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농성역,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엔 이곳엔 장터가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모여든다. 구성진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각설이 복장에서부터 반짝이는 드레스까지 온갖 화려한 옷을 입은 중장년들로 가득하다. 조촐한 무대에 200여 명 관중이 모이자 ‘나이아, 가라!’ 힘찬 구령과 함께 공연의 막이 열린다. 도심 속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작은섬터 ‘농성역’의 활기찬 모습이다.

새하얀 머리카락에 검은색 중절모, 빨간 나비넥타이까지 한껏 멋을 낸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갖고 있던 노래실력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하모니카 공연은 단원들이 입을 푸른 드레스만큼이나 은은한 멜로디로 지나가던 시민들 발걸음을 붙잡는다.

지난 1998년 서구노인복지관 회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빛고을예술단은 무료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간단한 율동과 악기를 배우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 출발했다. 교직이나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회원들은 음악과 춤이라는 낯선 분야를 공부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빛고을 건강타운, 북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등과 연대하면서 품물, 색소폰, 아코디언, 오카리나, 하모니카, 난타공연까지 다양한 콘

텐츠를 갖춰나갔다. 조금은 서툰 공연과 조촐한 무대지만 은퇴 이후 적극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광주 서구 레크리에이션연합회 송희평(66)회장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서구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가 아예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공연까지 기획하게 됐다. 송 회장은 보는 이들은 물론 참여하는 이들에게 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0세 시대가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인생도 2모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와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보니 수명이 늘어난 것이 축복이 아닌 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소외받고 있는 세대. 이들을 위한 방법을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합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다. 복지관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갖고 있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점도 아쉬웠다. 송 회장은 무대가 없다면 무대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역에는 난타와 오카리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작은 섬터로 불리는 농성역에서 빛고을예술단이 하모니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완성도 높은 공연과 최고 환경을 갖춘 무대 보다는 연습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은섬터 농성역 무대에 오른 어르신들은 색소폰을 표정으로 실수를 연발했지만 하나같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이를 보던 한 어르신은 “100m를 달려갈 때 도착점이 눈 앞에 보인다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은 없다”며 “달리기를 시작했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나 된 한반도에서 북북 동포를 위해 공연을 하고 싶다는 송 회장. 무모한 꿈이지만 도전하고 싶다는 그는 딱딱한 표정이지만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60년을 살던 분이 부인과 춤을 배우며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던 부부는 은퇴 후 자신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두 분은 더 이상 노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아 나선다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한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광주석산고 학생들 에세이집 ‘생각의 함수 f(x)’ 펴내

광주석산고등학교(교장 주태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집을 공동으로 펴냈다.

석산고 인문책쓰기 동아리 ‘미네르바의 올빼미’ 회원 9명이 펴낸 에세이집 ‘생각의 함수 f(x)’는 아직은 f(x) 함수처럼 미완의 사고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고민과 성장과정을 담았다. 특히, 학교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신새벽에 날갯짓 한다’는 부제를 달았다.

에세이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진학, 과도경쟁, 학교폭력, 자기주도학습, 독서, 수면과 휴대폰, 학교의 의미, 정치와 학교, 예체능 교육의 현실 등 9가지 주제를 학생들의 눈으로 깊이있게 고민했다. 특히, 입시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의 절규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어른들에게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석산고 1학년인 이들은 관심 분야를 9가지 주제로 정해 각자 자료 수집·연구·공동작업을 거쳐 책으로 묶어냈다.

이 동아리는 교육부의 우수동아리로 선정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014 전국 책 축제’에서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석산고는 학술·봉사·장차 등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41개, 상설동아리 12개, 3학년 토요동아리 17개 등 70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서 30년 연극 외길’ 김진호 예인방 이사장 대한민국 연극대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수상

1981년 극단 창단...매년 공연·청소년 아카데미 설립

인구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에서 30년 이상 연극 외길 인생을 걸어온 연극인이 ‘연극인 대상’을 받았다.

주인공은 전문예술극단인 사단법인 예인방 김진호(52) 이사장.

김 이사장은 한국연극협회가 주는 대한민국 연극대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이사장이 연극 불모지인 나주에 극단 예인방을 창단한 것은 지난 1981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다. 창단 이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34년 동안 130여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전라도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만들었다.

지난 1991년에는 예인방 부설로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연극교육원을 설립해 청소년 예술인재 육성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큰 상은 용기를 잃지 말고 더 열심히 연극을 하라는 선배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의 제복처럼 세월이 흘러 언젠가는 나주의 자랑스러운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4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사단법인 나주예총 회장과 남북문화교류협력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TV조선 주말드라마 ‘최고의 결혼’에서 안중락 보도국장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ng@



- 인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지역본부장 전보 ▲이종신 광주지역본부장
 - ◇1급 지사장 전보 ▲노주순 목포지사장
 - ◆CBS
 - ◇송진 ▲김진경 전북방송본부장
 - ◇전보 ▲김갑수 광주방송본부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허정(전남대학총동창회장 예년병원장)·박순단씨 장남 선(의사)군 마기환(서울백세안과원장)·한남씨씨 장녀 수진(의사)양=21일(일) 낮 12시 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 ▲이장진·조주선씨 장남 경신군 광도영(광주일보 진원지국장)·김미임씨 장녀 지니양=21일(일) 오후 1시20분 광주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 ▲최광호·김현숙씨 장남 두영군 이기섭(에리트경영연구소 대표)·김희중(서광주세무사)씨 장녀 가은양=20일(토) 오후 2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 ▲양화영(광주시 행정동우회 부회장·광주시 공무원교육원 과장)·이안자씨 장남 지승군 박만표·김명순씨 차녀 지혜양=21일(일) 낮 12시 광주 마리아웨딩스퀘어(구 상록회관) 3층 베라체홀.
- ▲김학춘(국제청소년교육재단 총무과장)·양복순씨 장남 용덕군 임근섭(전 동일전자정보교사)·김순복(합평 엽다초교)씨 장녀 이랑양=20일(토) 오전 10시

- 50분 광주 아이리시웨딩홀 2층 헤라홀.
- ▲최옥길(목포시 배구협회 상임부회장)·옥복씨씨 차남 성혁(신용보증기금 본사 신용보증부)군 백도인(백산건설 대표이사)·김영숙씨 장녀 형미(조선대 입학처)양=20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동창회

- ▲광주 대성여중(동창회장 김애정)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19일(금) 오후 7시 광주 동구 히딩크호텔

향우회

- ▲재광 영암향우회(회장 조성희) 송년회=19일(금) 오후 6시 광주 상무왕스컨벤션 062-375-7100

알림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

- 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

- 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

-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 4시) 062-410-5000.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교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하실 정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 ▲놀이매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상가 故人의 冥福을 받습니다

101호故김종성 남(남/75세) 子/子婦: 김성용/조영경, 김성진/김민희 女/婿: 김성희/양무한 未亡人: 지영란 *발 인: 12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故국영숙 남(여/76세) 子/子婦: 공영식/임춘자, 공영수/이명자 女/婿: 공준희/김민수 *발 인: 12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故박종삼 남(남/80세) 子/子婦: 박종수/신애란 女/婿: 박영희/전구수, 박옥희/정성환, 박진희/주영림, 박정희/정현숙 未亡人: 이금남 *발 인: 12월 19일 *장 지: 화산도당선영 *연락처: 227-4381	402호故채영수 남(남/79세) 子/子婦: 채희원/임미자, 채희수/나병숙, 채희상/연성 女/婿: 채숙희, 채민희/안대영 *발 인: 12월 18일 *장 지: 장평선영 *연락처: 227-4314

301호故이경순 남(여/75세)
 子/子婦: 김원근/이안숙, 김희곤/안은주 女/婿: 김 숙/정승현 夫婿: 김용운 孫子: 김영목, 김민우, 정일준, 정영기
 *발 인: 12월 18일 *장 지: 우안해례선영 *연락처: 227-4382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